

“해남이 최적지”...군, RE100 국가산단 유치 총력

1조원대 600mw 태양광 단지 조성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잠재력 지녀 기업투자·교육·정주여건 개선 착착

해남군이 RE100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을 결합한 에너지 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모두 갖춰 정부 지정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1조원을 투입해 산이면 부동지구 간척지 803ha에 600MW급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 전력을 솔라시도 기업도시 RE100 전용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간척지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첫 사례로, 농촌과 주민이 수혜를 받는 모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RE100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다. 군은 8월 서울 여의도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준비상황을 알렸다. 해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지녔으며 사업 즉시 착수가 가능할 정도로 기반이 갖춰져 있다. 현재 9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가동 중

이며, 2030년까지 5.4GW로 확대해 계획이다.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과 연계해 전국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허브로 조성된다. 기업 투자와 정주여건 개선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23년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및 종합병원 설치 협약을 체결했고, 2024년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됐다. 2025년에는 3GW급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MOA)과 미국 RCS 국제학교 MOU를 체결해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최종 후보지에도 선정됐다. 지난달에는 대통령 방미 중 블랙록이 재생에

너지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건립 협약을 체결했고, 이달 1일 오픈AI가 SK와 함께 전남에 전용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다시 주목받았다. 정부의 100조원 규모 AI 투자 공약과 RE100 산단이 맞물리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해남군은 주민과의 상생도 강조하고 있다. 2030년까지 345kV 신해남 변전소 등 2개소와 6개 구간(150km) 송전선로가 설치될 예정으로, 지중화와 보상 강화를 정부에 건의 중이다. 국가기간전략망특별법에는 선하지 매수 청구권, 주거 개선비 지원, 경과지자체 재정 지원 등이 반영됐다.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을 통해 발전소 인접 주민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주민 펀드 조성도 추진 중이다. 군은 연내 제정될 RE100 국가산단 특별법에 송·변전소 국비 지원, 외국교육기관 국비 100% 지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전면 허용, ESS·BESS 지원 근거 등이 담기도록 장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특별법에 지역발전 전략과 주민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RE100 국가산단을 반드시 해남에 유치해 대한민국 AI-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함평군사회단체협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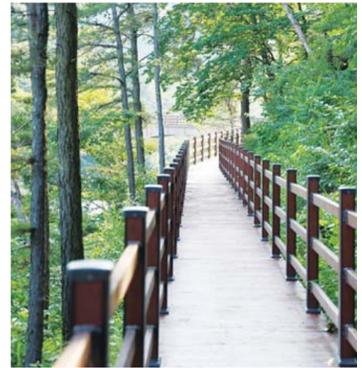
추석 연휴기간 서명 운동 ‘구슬땀’ 오민수 회장 주민 독려 중형무진

전국 69개 인구감소 지역 가운데 6개 군을 선정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마감에 임박한 가운데 대상 자치단체인 함평군에서는 사회단체협의회가 앞장서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함평군과 함평군사회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정부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발표 이후 2주일이 지나면서 군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유치 희망 주민 서명을 받다가 추석연휴가 시작된 지난 4일부터 함평군사회단체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담하면서 민·관이 함께 유치

를 위한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군을 선정해 2026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 모든 주민들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함평군도 전국 69개 지역중 한 곳이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인구 유출 방지 등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 발표 이후 해당 지자체가 주민설명회와 결의대회 등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포함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함평군사회단체협의회 오민수 회장은 지난 4일부터 유치 희망 주민 서명작업에 직접 나서면서 서명인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함평지역 서명작업은 지난 11일 현재 엄다면이 인구수 대비 94%를 달성했으며, 함평읍의 경우 9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민수 회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범군민 참여 서명부를 9개 읍·면의 각 마을 이장들이 서명을 받고 있다”면서 “저 또한 매일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면장과 이장들에게 서명작업을 인구 수 대비 90% 목표로 해내자고 독려하면서 부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규제를 하고 피해를 주는 곳에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다. 함평군에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가 들어오면 그 근처 약 1천500만평은 가축방역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주민 희

생이 따른다”고 강조한 후 “이에 상응하는 대책으로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함평군을 우선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시범자치체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그러면서 “이 주장이 관철된다면 우리 군민들 90% 이상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희망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서명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3일까지 희망지자체별 서류 접수 후, 오는 17일 최종 6곳의 지자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함평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면 2026년 1월부터 함평 전 군민이 매월 1인당 15만원 씩 1년 180만원 등 2027년 12월까지 1인당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함평=김연수 기자



‘아름다운 풍광’ 나주호 둘레길 개통

오는 17일...총 8km 숲·수변길 조성

나주시가 자연과 호수의 아름다운 풍광을 품은 ‘나주호 둘레길’을 오는 17일 전면 개통한다. (사진)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일부 구간만 임시 개방했던 ‘나주호 둘레길’을 전면 개통하며 시민과 방문객에게 새로운 힐링 명소를 선사한다. 지난 7월 부분 개방에 이어 안전 보온과 편의시설 확충을 마친 이번 개통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명품 힐링 걷기코스가 완성됐다. 시는 지난 7월 11일 한전 KPS 연수원-녹야원 28km(1구간), 중흥리조트-다도광업소 3.6km(2구간) 총 6.4km를 우선 개방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안전 점검과 편의시설 확충을 마쳤다. 이번 개통으로 나머지 구간까지 총 8km 전 구간이 시민들에게 열린다. 총사업비 110억원이 투입된 나주호 둘레길은 2021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약 4년에 걸쳐 조성했다. 한전 KPS 연수원-녹야원 4.4km(1구간), 중흥리조트-다도광업소 3.6km(2구간)로 이어지는 둘레길은 숲길과 나주호 수변 경관이 어우러진 명품 걷기 코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나주=정준환 기자

무안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기업 모집 오는 22일까지...면접 부스 등 지원

무안군은 오는 11월 7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글로벌스타트업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하는 ‘2025년 무안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2일 무안군에 따르면 ‘비상하는 일자리’라는 주제로 구직자와 관내 우수기업 간 만남을 통해 구직자에게 취업기회를, 구인업체에는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윈스톱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군은 행사 당일 현장채용관 15개사(간접참여 15개)와 함께 취업컨설팅, 입사지원서 컨설팅, 취업·진로상담, 이력서 사정판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운영해 구직자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2일까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전남인력개발원 또는 군청 미래성장과(일자리팀)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직자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면접 서류를 지참하고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인력난을 겪는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함께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영광군이 최근 향화도항에서 ‘섬 주민 무료 여객선 운항식’을 개최한 가운데 정세일 영광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공짜로 배 타요”...영광 섬 주민들 웃음꽃

‘무료 여객선 운항식’ 개최 내년 ‘의뢰서비스’ 도입도

영광군이 섬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여객선 운임 전액 무료화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12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향화도항에서 ‘섬 주민 무료 여객선 운항식’을 개최한 가운데 장

세일 군수를 비롯해 김강현 군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군의원,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및 관광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첫 승선자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퍼포먼스로 무료화 시행의 상징성을 더했다. 지원 대상은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등 영광군 관내 유인도서 주민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 중인 경우 여객선을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1천원이었던 운임이 면제되면서 생활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군은 내년부터 공중보건의가 없는 낙월도, 안마도, 송이도, 대석만도 등에 ‘비대면 섬닥터 의료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문의 화상 진료와 약 배송을 전액 무료로 지원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낙월도 주민 김영준 이장단장은 “요금을 내지 않고 배를 타보니 마치 이 배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며 “무엇보다 섬 주민들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신안군 주한대사부인회 ‘꽃 예술 전시회’ 개막

19일까지 황해교류박물관서 신안군은 12일 “오는 19일까지 황해교류박물관에서 주한대사부인회 꽃 예술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전시에는 네덜란드, 호주, 일본, 튀르키예, 콜롬비아 등 13개국 주한 대사 부인들이 참석했다. 특히 전시는 17-19일 1004섬 분재정원에서 열리는 ‘제25회 국제꽃장식대회’의 서막을 여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돼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전시회에는 대사 부인들이 자국 문화를 모티브로 직접 제작한 꽃 작품이 선보였다. 작품들은 서울 방식꽃예술원에서 진행된 사전 워크숍을 통해 완성됐으며, 국제꽃장식대회 기간까지 특별 전시회 관람객들에게 세계 각국의 예술적 감각을 전할 예정이다.

존 밋셀 네덜란드 대사 부인(주한대사부인회 대표)은 “신안은 다채로운 색채의 꽃과 광활한 갯벌, 철새가 어우러진 살아있는 정원 같은 섬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전시는 세계적 꽃파는 신안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자 국제꽃장식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신안=양훈기 기자